**마르크스의 초기 사상 정립과정**

2014120116 이진규

많은 사람들은 마르크스를 단순히 지금은 실패해 몇몇 나라에만 남아있는 공산주의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정확하게는 공산주의의 창시자가 아니며. 한 시대를 풍미한 경제학자였고, 동시에 철학자였으며, 수많은 고뇌를 통해 지금까지도 읽히는 다양한 저작들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다. 마르크스는 많은 사상과 인물들의 영향을 받고 자신의 사상을 정립해 갔다. 그 중에서도 마르크스 초기의 사상에 영향을 준 사상과 인물들을 살펴보자.

우선 마르크스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철학 분야는 그 시대의 독일 대학의 유행처럼 헤겔 철학이었다.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던 본 대학교에서 떠나, 베를린 대학교로 학교를 옮길 무렵 헤겔 학파는 이후에 ‘청년 헤겔학파’로 불리는 진보주의자들과 ‘노년 헤겔학파’로 불리는 보수주의자의 두 무리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다. “이들의 분열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성적’과 ‘현실적’이라는 용어 중에 상대적으로 어디에 강조점을 둘 것인가를 둘러싸고 발생했다.”[[1]](#footnote-1) “보수주의자는 현실적인 것만이 이성적이라고 공언하면서 합리성의 척도는 현실성 내지 생존 능력이라고 선언했다.”[[2]](#footnote-2) 이 주장을 통해 보수주의자들은 그 당시 가장 발전된 정치체제라고 생각되는 프로이센의 체제를 옹호했다. “이와 반대로 급진주의자들은 이성적인 것만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실은 대개 모순과 시대 착오와 맹목적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고 규정했다.”[[3]](#footnote-3) 급진주의자들은 이 주장을 통해 현실적인 것 - 즉 국가로부터 - 해방을 주장했고, 필요하다면 이는 폭력을 통한 투쟁을 방법으로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상황속에서 마르크스는 헤겔 철학에 빠져들었다. 특히 자유주의를 믿고있는 학생들이 모인 ‘독토르 클럽’이라는 학사 클럽의 일원이 되면서, 마르크스는 또래의 청년들과 헤겔 철학에 대한 끊임 없는 토론을 하며 청년 헤겔학파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후에 그는 라인 신문의 편집장으로 일하게 되는데, 헤겔 철학을 바탕으로 정부를 강력한 논조로 비판하고, 교묘하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색채를 드러내는 과정속에서 신문은 정부의 탄압으로 폐간에 이르게 된다. 그후 마르크스는 다양한 책을 읽으며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데, 포이어바흐의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마르크스의 생각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 책에서 포이어바흐는 ”신은 인간의 본질이 외부로 투사된 것으로 신은 곧 인간이라고 주장했다”.[[4]](#footnote-4) 또한 그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헤겔의 주장처럼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조건의 총합이라는 유물론의 관점을 제시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포이어바흐의 주장에 매료되어 유물론을 받아들이게 된다. 헤겔 철학에 대한 비판과정 속에서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받아들여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과는 다른 유물론에 입각한 변증법을 만들게 된다.

새로 유물론적인 관점을 받아들인 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당시 프로이센의 억압적인 분위기와, 옛 헤겔학파 동료들의 허울 뿐인 말로 대중을 우롱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던 마르크스는 파리로 이주한다. 이 시기 파리는 프랑스혁명의 결과로 잠시 공화정이 들어섰다가 다시 왕정으로 복고한 상태였다.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프랑스혁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헤겔, 포이어바흐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헌들의 탐독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다. “헤겔은 프랑스 혁명이 실패한 요인들로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고, 절대 이념이 아직 적합한 단계에 이르지도 못했으며, 혁명가들이 달성하고자 한 이상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비역사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5]](#footnote-5) 하지만 헤겔이 말하는 이상인 “인간이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세계를 되찾아가는 과정”[[6]](#footnote-6) 또한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그들이 주장하는 절대 이념의 단계에는 마르크스와 급진주의자들이 이해한 것과 같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7]](#footnote-7)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한 후 헤겔은 다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와 연구에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는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생시몽은 산업화를 통한 발전이 인간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프랑스 혁명을 귀족과 부르주아 그리고 무산대중 사이의 계급 투쟁으로 보았다.”[[8]](#footnote-8) 이와 달리 푸리에는 평등한 분배를 성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산업화는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이 주장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적절한 분배에 대한 관리와 동시에 개발이 함께 일어나면 인간이 바라는 새로운 사회가 건설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파리에서 마르크스는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프리드리히 엥겔스이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빛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유명세를 떨치지 못했지만, 그 만큼이나 명석한 사람이었다. 마르크스와 경쟁하지 않고 그의 사상을 받아들여 일평생 그의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으며, 마르크스가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마다 그의 옆에서 해결사를 자청했다.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 <<신성 가족>>, <<독일의 지배 이념>> 등을 집필하기도 했다. 또한 마르크스가 죽은 이후 <<자본론>>의 뒷부분을 정리해 출판해 주는 등 끝까지 마르크스의 친구이자 학문적 동반자로 남았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이론의 영향을 받아 마르크스는 자신의 사상의 기반을 확립하게 되고 이는 후에 <<공산당 선언>>, <<자본론>> 등의 저서를 쓰는 바탕이 된다.

참고 문헌

로만 도스돌스키.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형성(백의, 2003). 양희석 역.

에릭 홉스봄.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까치글방, 2012). 이경일 역.

이사야 벌린. *칼 마르크스 그의 생애와 시대*(미다스북스, 2001). 안규남 역.

저부제. *미치광이, 루저, 찌질이 그러나 철학자*(시대의창, 2016). 허유영 역.

프랭크 터너. 예일대 지성사 강의(책세상, 2016). 서상복 역.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다시 쓰는 서양 근대철학사(오월의 봄, 2012).

1. 이사야 벌린, *칼 마르크스 그의 생애와 시대*(미다스북스, 한국, 2001), 안규남 역, 114 [↑](#footnote-ref-1)
2. 이사야 벌린, *칼 마르크스 그의 생애와 시대*(미다스북스, 한국, 2001), 안규남 역, 114 [↑](#footnote-ref-2)
3. 이사야 벌린, *칼 마르크스 그의 생애와 시대*(미다스북스, 한국, 2001), 안규남 역, 115 [↑](#footnote-ref-3)
4. 저부제, *미치광이, 루저, 찌질이 그러나 철학자*(시대의창, 한국, 2016), 허유영 역, 43 [↑](#footnote-ref-4)
5. 이사야 벌린, *칼 마르크스 그의 생애와 시대*(미다스북스, 한국, 2001), 안규남 역, 149 [↑](#footnote-ref-5)
6.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다시 쓰는 서양 근대철학사*(오월의봄, 한국, 2012), 373 [↑](#footnote-ref-6)
7. 이사야 벌린, *칼 마르크스 그의 생애와 시대*(미다스북스, 한국, 2001), 안규남 역, 149 [↑](#footnote-ref-7)
8. 에릭 홉스봄,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까치글방, 한국, 2012), 이경일 역, 39 [↑](#footnote-ref-8)